

제7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에 다녀와서

어촌·어항·어장 발전을 위해 민간교류의 꽃을 피우다

이 준 호 | 한국어항협회 기술개발부

한·일 양국의 어촌어항어장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와 양국 어항관계자의 우호증진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작된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이제 7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7월 6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가고시마시 시로야마(城山)관광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제7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번 회의에는 급변해 가는 세계 수산업의 흐름속에서 한·일 양국이 대처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읽을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7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일정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7월 5일 : 환영리셉션

일본방문 첫날인 5일 저녁에는 회의 참가자간의 상견례 및 환영리셉션이 주최측인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주관으로 시로야마관광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배평암 한국어항협회장을 단장으로, 이환범 한국기술사회장, 류정로 부경대학교 교무처장, 안희도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 발표자인 김창길 국립수산업과학원 수산연구관과 정형태 (주)한아엔지니어링 부회장, 이준호 한국어항협회 기술개발부 사원



심수관 요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한국측 대표단 일행과 일본어항어장협회 관계자들



배평암 한국어항협회장과 가고시마현 어항협회 야마모토 료코 서기, 한국해양수산부 김승호 과장(좌로부터)

등 산학연 관계인사 8명과 정부측 참가자로 해양수산부 김승호 어촌어항과장과 어촌어항과 강호석씨 등 10명의 대표단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일본측에서는 전국어항어장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관계자, 수산청 다나카 준지(田中 潤兒) 어항어장정비부장을 비롯한 수산청 관계자들, 가고시마현 어항협회 관계자들, 수산관련단체 및 수산 관련신문사 기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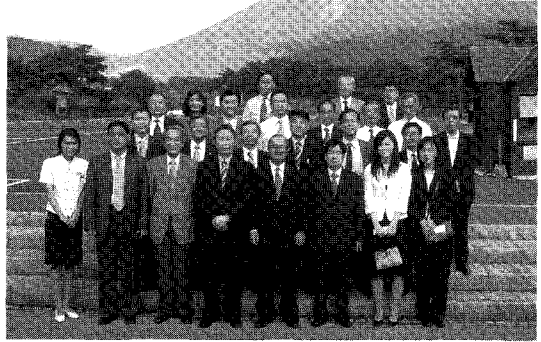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 대표자들의 축사가 있었는데 배평암 한국측 단장은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온 양국간의 어항기술교류회의가 양국의 어항기술 개발과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양국 어항어장관계자들의 우호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또한 사카이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장은 어항기술교류회의도 7회째를 맞아 양국의 어항어장관계자들의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양국간 교류가 깊어지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환영리셉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회의에 참석하였던 일본측 참가자들은 한국측 참가자들에게 반가움을 나타내며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마지막으로 펼쳐진 축하 공연에서는 양국 참석자들이 무대로 올라가 한데 어울리는 등 양국 어항어장관계자의 우호증진 및 친선도모에 많은 기여를 한 행사였다.

7월 6일 : 제7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의 개최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시로야마 관광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전에는 개회식과 일본측의 기조강연과 양국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한국측 주제발표 및 의견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한·일 양국 대표의 인사말과 일본



회의를 마친 한국대표단과 일본대표단이 가고시마 韓國岳이 보이는 곳에서 기념촬영

수산청 장관의 축사(대독) 및 양국 참가자들의 소개가 있었다. 사카이 회장은 양국의 어업지역 개발발전에 공헌하고자 시작한 이 회의가 앞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장기적으로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하기 바라며, 한·일 어업지역의 유지·개발을 목표로 보다 넓게 수산기반정비 전반의 기술교류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했다.

배평암 한국측 단장은 한·일 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가 바다를 공동의 자원으로 공유하는 양국간 어항어장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술적인 정보 공유의 장과 함께 양국 어항어장 관계자들의 우호증진과 친선도모에도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최근 수산업의 기본 방향인 「어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역의 개발」에 부합되는 시의적절한 주제선정이었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남겼다.

한편 수산청 장관은 한·일은 세계 유수한 어업국으로 양국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업자의 조업안전확보, 생활수준의 향상, 어업생산 진흥의 기반인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에 대해 양국간에 기술교류를 진행시켜나아가는 것은 상호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축사를 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어업·어촌의 활성화와 해업(海業)의

진흥'이란 주제로 료 쇼하(婁 小波) 동경 해양대학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료 교수는 우선 "어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관광을 포함, 바다를 소재로 한 새로운 생업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수요, 어가경영, 어촌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고도화에 대응한 어항 및 수산기반정비가 필요하다"고 연설했다.

이러한 '어업·어촌의 활성화와 해업(海業)의 진흥'이라는 주제는 최근 일고있는 어촌과 어항과 어장을 통합한 개발이라는 코드와 잘 맞아 한국측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을수 있었다.

또한 뒤를 이어 '중양식업을 배려한 어항어장정비'라는 주제로 일본, 한국의 순서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일본측에서는 '아즈마정(東町)에서의 어업양식과 어항시설배치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모리나가 아키라(森永 明) 가고시마현 임업수산부 어항과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모리나가 과장은 아즈마정의 어류양식 현황을 소개하면서 특히 우스이(蕪井)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어 양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는데, 이 우스이 어항은 최근3년간 평균어획량 13,400톤중에 12,400톤(92%)가 방어양식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양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1966년 3차 어항정비사업에서부터 2001년 9차 어항정비사업까지 실시된 우스이 어항의 정비사업에 대해 단계별, 지역별로 설명하고 정비사업에 의한 파급효과로써 연안어업구조개선사업이나 어업근대화시설정비사업에 의한 육상관련시설의 정비로 인하여 양육량의 증가와 관광객의 증가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모리나가 과장은 우스이 어항은 「만들고 기르는 어업」의 거점항으로서 수역의 보전에 노력하고, 양식어업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취로환경의 개선,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안전한 항을 지향하는 동시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측의 주제발표는 아즈마정의 개발에 관한 현황과 추이만을 설명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일본어항개발 방향을 엿볼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다음날 우스이어항을 시찰할 기회가 되어 자기 눈으로 잘 정비된 일본어항을 볼수 있어 좋았다.

뒤를 이어 첫 번째 한국측 발표자인 김창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관은 '연안 생태계를 고려한 어항시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창길 수산연구관은 어항시공이라는 주제를 사람의 관점이 아닌 생태계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발상의 전환이 모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았다.

주제발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어항을 매개로 한 자원조성의 증강이고, 다른 하나는 어항에 대한 레저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자와 관련해서는 갯녹음 등 해조류의 회복방법, 패류의 공간구조 선택성, 그리고 저층어류의 구조에 관한 것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어항을 하나의 자원배양체로 고려하는 다른시각의 발상이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스포츠 어획, SCUBA, 경관 등에 관한 해양레포츠를 도입에 관한 설명이었다.

이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계속하여 두 번째 한국측 발표자인 (주)한아 엔지니어링 정형태 부회장이 '다기능 환경 친화형 호안구조에 관한 연구(소파 파형 블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소파 파형 블록이란 호안 축조시 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록의 형상을 변형하여 약간의 소파기능과 어초기능을 부여, 가능한 한 환경 친화적이고 친수성을 갖도록 고안한 블록공법으로 석재 사용을 극소화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어초기능을 갖게 함으로서 친수성을 제고하여 해변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호안 블록을 개발하여, 한국과 일본국의 공법 특허를 취득한 다기능 호

안 공법으로 일본측 어항건설 관계자나 수산청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질문과 응답이 계속되는 등 참가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양국발표자들의 발표 후에는 발표내용 및 주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발전적인 내용의 질문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많이 교환할 수 있었다. 너무 열띤 의견교환으로 인해 통역하는 분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잘 못 통역하는 가벼운 헤프닝도 일어났다.

열띤 의견교환에 이어 양국 대표단의 폐회사 및 단체 사진촬영을 끝으로 제7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막을 내렸다. 양측 대표단 모두 이번회의의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다는 다짐과 함께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8차 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7월 7일 : 우스이어항 및 아쿠네어항 시찰

한국대표단 및 일본측 관계자 20여명은 오전 11시경 첫 시찰지인 우스이어항에 도착하였는데 처음 찾은 곳은 우스이어항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였다.

푸른 바다와 잘 정비된 어항구역과 바다목장을 연상케하는 양식장 시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아즈마정의 관계자가 나와 친절하게 우스이어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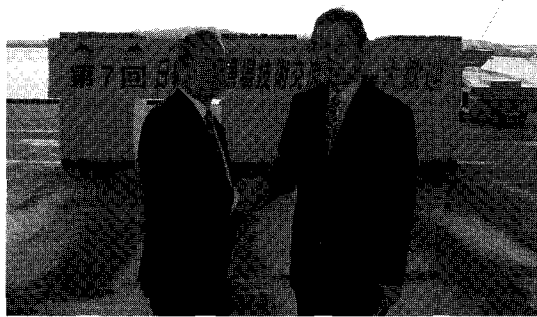
설명을 들은 뒤 기념촬영을 한 다음 방어가공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방어가공 공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안타깝게도 작업시간이 끝나 작업상황은 볼 수 없었으나 일본 최대 방어생산량이 말해주시듯이 공장시설과 주위환경은 깨끗하였다.

방어가공 공장에서는 내장만 제거한 세미토레스,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토레스, 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진공포장을 한 휘레 등을 일본국



우스이어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대표단



아쿠네 어항앞에서 뜨거운 양국의 우의를 보여주고 있는 배평암 한국어항협회 회장(우), 사카이 스노오 일본어항어장협회 회장(좌)

내의 슈퍼마켓, 대형유통센터는 물론 아메리카, EU, 대만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시찰어항인 아쿠네(阿久根)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는데 아쿠네시장님께서 직접 시찰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어항에 관한 설명은 아쿠네시 수산상공 관광과 마츠모리과장이 맡아서 해주었는데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를 중심으로 한 연안어업이며 1994년까지 연간 6만4천톤의 양륙량을 보이다가 어획량의 감소로 최근에는 전성기의 20%인 1만4천톤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쿠네어항에서도 작년 5개의 어협이 합병하여 설립한 키타사츠마(北薩摩)어협에서는 최근 들어 ①제품의 브랜드화 연구 ②식품의 안전화를 위한

위생관리형 하역소를 정비하는 등 환경보전의 노력 ③양식업과 시장통합 등에 의한 기능집약화를 실시, 어업활동의 효율화 및 활성화 도모 등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쿠네어항을 뒤로 하는 차안에서 “아쿠네 어항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쇠퇴해가는 어항의 일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가이드의 솔직한 말이 진정한 정보교환의 장으로 한·일 기술교류회의가 발전해가는 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7월 8일 : 하카다항만 시찰

아침 일찍 가고시마를 뒤로 한 채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福岡)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조금 못된 시각이었다. 공항에서는 벌써 후쿠오카 영사관에서 박한준 해양수산관과 하카다항만·공항정비사무소 이시누키(石貫)소장과 요시모토(吉本)계장이 마중을 나와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점심을 들면서 하카다 항만에 대한 계약적인 설명을 듣고 13시부터 후쿠오카시 항만국 시찰선 “나노츠”를 타고 하카다항만 시찰에 나섰다. 이 배에는 후쿠오카시 농림수산국 수산부 어항과 관계자가 동승하여 어항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

하카다항은 큐슈(九州)·서일본의 관문항으로서 무역, 여객, 공업, 친수시설 등을 갖춘 종합적인 항으로 세계의 주요항 30개 항로를 월간 160편 운항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서일본에서 유일하게 북미와 유럽 정기항로의 기항지이며 21세기의 국제 거점항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항만투자가 이루어 진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 하카다항안에는 다시 여러 가지 기능에 맞추어서 부두가 나누어져 있다는데

- ① 다양한 항만관련시설을 가지고 있는 하카다항 최대부두인 하코사키(箱崎)부두
- ② 고도화 창고, 국제여객선, 대

형전시장 등이 입지한 다기능 부두인 중앙부두

- ③ 대규모 보관시설이 설비된 큐슈의 곡물기지인 수자키(須崎)부두
- ④ 건축자재 및 LNG취급부두인 히가시히마(東浜)부두
- ⑤ 국내 정기여객선이 이용하는 여객선 부두로서 도심에 인접하여 친수시설 및 광장,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는 하카다부두
- ⑥ 연간 취급량이 484만톤의 석유기지인 유류전용부두인 아라슈(荒津)부두
- ⑦ 하카다항의 워터프론트시설인 아일랜드 시티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박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에서나 참가인원 및 발표내용의 질적인 수준 등이 높아진 제7회 한·일 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어항어장협회, 어업협동조합 등 어항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어촌·어항·어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작은 예로서 가고시마현 어항협회 서기인 야마모토 료코(山本 好子)라는 여성분은 회의 전일정을 같이 하면서 리셉션장과 연회장 등에서는 일본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등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유관단체의 왕성한 활동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고 어항의 관광기능 활성화 등 종합적인 어항개발의 준비에 있어 어항의 관광기능 활성화 등 종합적인 어항개발의 준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류회의를 통하여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기능어항의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한국에서도 여러방면에서 한국실정에 맞는 어촌·어항·어장 개발로 나타나길 바라고 또한 이러한 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